

말씀은 곧 사랑이다

작성일: 2011년 12월 1일 (목) 새벽 3시 19분

작성자: 이지인

[새벽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던 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을 느끼고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 추운 곳에 계실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간절히 부르던 중에 선생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선생님이 계신 곳도 많이 춥죠?”)

춥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싸늘해졌다고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있고,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다.

너 그거 아냐?

나에게는 육신의 추위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싸늘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추울 때이다.

(“선생님은 언제 마음이 추우세요?”)

너희들이 몰라줄 때.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몰라주고 외면할 때

나는 너무나 춥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인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퍼부어 주는 나의 사랑의 가치를
너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이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가장 고요한 첫 시간

무릎으로 기고 기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깊은 영계에 도달해

주님께 주일, 수요일 말씀을 받아 낼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행복에 휩싸인다.

왜인 줄 아냐?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줘야겠다는 설렘과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생각
하면

내 마음은 어느새 흥분으로 가라앉지를 앓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커다란 기쁨을 너희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너무나 설렌다.

그 기쁨의 맛으로 나는 힘이 들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앓는 것이다.

헌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너희가 그 가치를 모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

실망으로 무너진다.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싸늘함과 추위는

육신의 추위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의 크기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너희만이 채워 줄 수 있는 사랑 그릇에

빈 공간이 생겨 너희에게 받지 못한

사랑의 공허함과 쓸쓸함이 느껴져

오늘도 난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주님을

깊은 한숨으로, 눈물로 부르는

내 말 못 할 속사정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싸늘한 무관심이 전해져 올 때,

내 마음속 모든 세포들은

겨울철 흐르다가 뽕뽕 얼어붙은 고드름처럼

내 마음도 얼어붙는다는 것을 너희는 진정 모를 것이다.

내가 이러한 나의 심정을 너희에게

구구절절 얘기하지는 못하고,

너희에게 늘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그렇게도 외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는 말씀은 글이 아니다.

책이 아니다.

너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전단지가 아니다.
광고물이 아니다.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받아낸
너희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이다.
너희는 내 사랑을 깨달아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 사랑, 나의 몸부림,
나의 땀방울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만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진정으로 내 사랑을
가슴 속 깊이 깨달아라.